

An Analysis of the Press view on the Korean Protestantism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Sungsam Oak*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is research strives to analyse how the Korean Protestantism, as depicted in the press, has changed before and after Covid-19.

CONTENTS This study takes into account a total of 194 samples from weekly reports and big data analysis over the course of a 4-year collaboration with a Christian newspaper(Gospel Today). The weekly analysis reporter conducted contents analysis through Naver news search and big data analysis through BIG KINDS. In this study, the results were derived by an integrated re-analysis of the weekly analysis report.

RESULTS First, there was a seven-fold increase in news reports and changes were brought to the issues related to the Korean Protestantism. Second, the most popular keyword before covid-19 was 'Sexual Assault', while it was 'confirmed cases' after the virus. Negative sentimentality regarding these keywords doubled in comparison to results acquired before covid-19. Third, Church and people that the press paid attention to had the characteristics of 'mega-Church', 'illegal acts', 'deviance', and conflict regardless of COVID-19. Media reports before and after COVID-19 show that the conflict between Korean Protestantism and Korean society has intensified.

KEY WORDS Covid-19, Press, Korean Protestantism, BIG KINDS, Contents analysis

* **Corresponding to** Sungsam Oak (Guest Professor, Department of Liberal Arts,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E-mail : accts@naver.com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코로나19 전후 언론이 바라보는 한국 개신교

옥성삼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전후로 언론이 보도한 한국 개신교의 이미지 변화를 분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최근 4년간 개신교 신문(가스펠투데이)을 통해 매주 보도된 주간 분석리포터 194회분을 대상으로 종단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간 분석리포터는 네이버 뉴스검색을 통한 내용분석 그리고 빅카인즈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을 함께 진행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합적으로 재분석하는 방법으로 결과물을 도출하였다.

결론 연구결과는 첫째, 코로나19는 7배가 넘는 기사량의 급증을 가져왔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기사량의 급증으로 중립성향의 기사비율은 증가하고 긍정성향과 부정성향의 기사비율은 줄었다. 셋째, 교회관련 언론보도의 핵심이슈는 2018~2019년 ‘이재록 목사의 성폭행’, ‘명성교회 세습사태’ 등에서 코로나19 이후 ‘코로나19 사태’,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간별 핵심 연관어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성폭행’이고, 이후에는 ‘확진자’로 나타났다. 다섯째, 핵심 연관어의 감성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이후의 부정성향이 약 2배 증가했다. 여섯째, 언론이 주목한 교회와 인물은 코로나19와 무관하게 ‘대형교회’, ‘불법행위’, ‘일탈’, ‘갈등’이라는 특성을 가졌다. 코로나19 전후 언론보도의 변화를 근거로 한국 개신교와 한국사회의 갈등적 관계가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코로나19, 언론, 한국 개신교, 빅카인즈, 내용분석

I. 서 론

언론이 종교문제를 성역이 아닌 사회 현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보도하게 된 배경에는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종교의 현실참여 그리고 1970년대 종교의 급성장 등 두 가지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특히 1972년 10월 발표된 유신체제는 도시산업선교회 등 종교관련 단체의 사회참여운동을 확산시키면서 언론에서 종교문제 보도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대부분의 일간지가 주1회 문화면을 전면 종교면으로 제작 보도하였다(Lee, 1987: 98). 일간지의 주간 종교보도 관행은 매체 환경 변화에 따른 여러 변화가 있지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언론이 종교문제를 보도하는 것은 주로 비판적 관점의 시사 저널리즘 형태로 나타나며(Park, 2008: 112), 종교 본연의 활동보다는 각 시대별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한 보도 비중이 크다(Oak, 2014: 240-241). 따라서 언론이 종교문제를 보도하는 관점과 성향은 각 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종교에 대한 언론보도의 내용과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구조적으로는 각 종교에 대한 시대별 언론 및 사회의 관심, 기대, 비판 등이 무엇 인지를 살펴보는 작업이기도하다. 언론의 종교관련 보도성향을 긍정, 중립, 부정으로 구분하여 시대별로 살펴보면, 종교에 대한 시대별 사회적 인식 그리고 각 종교별 대사회적 역할 및 관계성에 대한 추이를 가늠해 볼 수 있다. Lee(1993)와 Jang(2001)의 연구를 근거로 1970년대와 1980년대 소위 제도권 종교별 보도성향을 보면 개신교와 천주교는 긍정성향의 기사비율이 월등히 높고 부정성향의 기사비율이 현격하게 낮은 편이다. 반면 불교는 부정성향의 기사비율이 긍정성향의 기사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보면 1980년대까지 개신교와 천주교의 사회적 역할과 이미지가 긍정적이었던데 반해 불교는 부정적으로 비춰졌다. 이는 산업화 도시화 민주화 등의 시대적 이슈에 대한 종교별 역할과 참여도 등에 대한 언론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세계화(Globalization)가 시작된 시기부터는 불교에 대한 긍정성향의 보도 비율이 부정성향의 보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한 언론보도 성향은 기존의 패턴을 유지하지만 긍정성향의 보도비율이 줄고 부정성향의 보도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2010년대 언론보도의 성향을 분석한 Lee(2021)의 연구에 따르면 개신교에 대한 언론보도는 세 종교 중 긍정성향과 부정성향의 비율이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21세기에 들어서 한국 개신교가 타종교에 비해 사회적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갈등적 관계 역시 강하다는 양면적인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전후 한국 개신교에 대한 언론보도를 분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최근 한국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그리고 코로나19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개량적으로 성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언론매체 및 대중의 한국 개신교 인식변화

20세기 종교 및 한국 개신교에 대한 언론의 인식 변화는 Lee(1993)와 Jang(2001)의 일간지 종교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해방이후 50년간 조선일보의 보도성향을 개괄하면, 개신교는 70년대 이후 부정성향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반면, 긍정성향의 비율은 60년대 이후 낮아져 90년대는 60년대의 절반수준으로 낮아졌다. 가톨릭은 부정성향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매우 낮고, 긍정적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불교는 80년대까지 부정적 비율이 긍정성향의 비율보다 높고 세 종교 중에서 부정성향의 기사 비율이 가장 높으나, 90년부터는 긍정성향의 비율이 부정성향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목할 사항은 조선일보의 경우 1990년대 개신교의 부정성향의 기사의 비율이 불교보다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언론보도를 통한 한국 개신교의 부정적 이미지는 제도권 종교 중에서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된다. 21세기 종교별 언론보도 성향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를 대상으로 Jung(2010)의 연구와 2010년대를 대상으로 Lee(2021)의 연구가 있다. 이현주의 최근 10년간(2010~2019) 일간지 종교 보도 현황 분석에 따르면, 종교별 긍정성향의 비율에는 차이가 있지만, 부정성향의 비율은 2010년대와 1990년대가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표 1> 시대별 종교별 보도성향 비율
<Table 1> ratio of article tendency by religion and period

종교	보도성향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년대	10년대
개신교	긍정	21.7	86.7	78.3	62.3	42.5	9.7	35.4
	부정	69.6	13.3	11.3	21.7	22.0	5.8	17.4
천주교	긍정	57.1	87.5	92.9	74.1	45.3	14.2	24.4
	부정	28.6	12.5	2.4	7.4	1.0	4.4	6.6
불교	긍정	19.6	41.2	36.4	43.5	30.5	5.6	27.5
	부정	76.1	58.8	48.5	47.1	19.9	3.3	13.1

※ Lee(1993), Jang(2001), Jung(2010), Lee(2021) 등의 연구를 근거로 연구자 재작성.

한국 개신교에 대한 대중의 인식변화를 설문조사 방식으로 살펴보면, 2010년대는 이전에 비해 부정성향이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2013년 한국목회자협의회와 한국기독교 신뢰도 조사는 개신교 18.9%, 가톨릭 26.2%, 불교 23.5% 등으로 개신교 신뢰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of Christian Pastors, 2013:

1-110).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실시한 한국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보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008년(48.3%), 2010년(48.4%), 2017년(51.2%), 2020년(63.9%) 등으로 최근 12년간 15.6% 증가했다(Christian ethics movement of Korea, 2020: 64-67). 2021년 1월 시행한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비개신교인의 경우 82.4%로 나타났다(Baik, 2021: 101).

2. 선행연구

언론의 한국 개신교 보도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로 20세기 환경을 대상으로 한 것은 Lee(1993)와 Jang(2001)이 대표적이다. Lee(1993)는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종교를 혼란기(1950년대), 안정기(1960년대), 성장기(1970년대), 성숙기(1980년대) 등으로 구분하여 종교별 기사 성향(공정, 부정, 중립)을 분석했다. 이원규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1990년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장흥근은 4개 일간지의 1990년대 종교관련 기사에 대한 기사빈도와 성향에 대한 내용분석을 하였다. 21세기 환경에서 Park(2008; 2009)은 미디어와 종교의 교차에 대한 유형화 그리고 종교담론 분석을 통하여 언론과 종교를 관계를 이해하고자 했다. 그리고 Park(2010)은 같은 관점에서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종교면 기사의 내용분석을 했다. Lee(2011)는 미디어가 종교 교리를 보도할 경우 이성적 기준 이외 종교에 대한 이해와 함께 배려의 윤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Hwang & Kim(2015)은 2007년 아프칸 선교단체의 피납 사건을 보도한 신문기사의 프레임을 분석적으로 도출하여, 이를 언론의 중립성 공정성 사회적 가치 등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성찰했다. Oak(2014)은 일간지 4곳의 사설에 대한 내용분석과 담론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와 한국 개신교의 만남을 구성주의 관점에서 성찰했다. Kim(2010)은 방송3사와 일간신문 4개의 내용분석을 통해 미디어 보도에 나타난 3대 종교의 이미지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했다. Jung(2010)과 Lee(2021)는 각 각 2000년대와 2010년대 일간지 종교관련 기사의 내용분석을 진행했다. Lee(1993), Jang(2001), Jung(2010), Lee(2021) 등의 연구는 종교보도 현황에 대한 현상적 내용분석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분석틀을 공유함으로 각 시기별 연구의 연속성이 있다. 코로나19와 한국 개신교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연구로 Kim(2020)은 2002년부터 2020년까지 감염병 관련 대응 현황을 빅데이터 텍스트 마이닝분석으로 개량화하여 한국 개신교의 선교적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Baik(2021)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언론기자를 포함한 14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국민 인식조사(설문조사)를 통해 개신교를 바라보는 대중의 인식현황을 분석했다. Seo & Ha(2021)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언론이 보도한 신천지 담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으로 언론 권력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비판했다. Koo & Noh(2022)는 코로나19 발생부터 5개월간 포털의 종교 기사 및 댓글을 딥러닝을 이용하여 감성변화로 분석했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언론이 한국 개신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분석적으로 고찰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특히 코로나19 전후 4년간을 대상으로 언론보도에 나타난 한국 개신교에 대한 인식을 분석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과제이다.

연구문제 1: 코로나19 전후 언론이 바라본 한국 개신교의 이슈와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언론이 보도한 한국 개신교 뉴스는 코로나19 전후에 어떤 특성과 변화가 있는가? (기사빈도, 보도성향, 주요 이슈, 핵심 연관어)

연구문제 3: 언론이 관심을 가지는 한국 개신교 관련 인물/교회의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 한국 개신교 관련 언론보도에서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의 유형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 개신교 관련한 언론보도를 내용분석 및 빅데이터 분석 두 가지로 진행하였다. 내용분석은 네이버의 뉴스 검색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빅데이터 분석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kinds.or.kr)를 이용했다. 대상매체 수는 시기별 조정이 있지만, 네이버에 뉴스 서비스를 하는 40개 매체 그리고 빅카인즈에 서비스 하는 매체중 국민일보와 세계일보를 제외한 52개 매체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 기간은 코로나19 전후 4년으로 2018년 4월 1주 ~ 2021년 12월 5주까지이다. 분석은 2단계로 진행하였다. 먼저 대상 기간 중 연구자가 매주 두 가지 분석방법으로 추출한 ‘주간 빅 데이터 뉴스리뷰’를 개신교 언론매체인 가스펠투데이(gospeltoday.co.kr)에 주간별로 기사화하였다. 다음으로 4년간 기사화된 194회분의 주간 분석리포터를 대상으로 통합적으로 재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시점에서 항목별 일괄적인 분석에 비하여 매주 단위로 진행한 1차 분석 리포터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주간 단위의 현장성이 주요하게 고려되었다.

1) 자료수집 절차와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18년 4월 1주부터 2021년 12월 5주까지 가스펠투데이를 통해 1차 분석리포팅 된 주간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1차 분석 리포터는 네이버 뉴스 검색을 통한 내용분석과 빅카인즈를 통한 연관어 분석을 병행 하였다. 4년간 매주 단위로 진행한 1차 분석 리포터는 분석 구조와 방법에서 동일성을 유지하였다. 빅카인즈를 통한 연관어 추출은 사회 언론

의 관점을 도출하기 위해 개신교 연관 매체라 할 수 있는 국민일보와 세계일보 2곳은 처음부터 제외하였다. 분석 대상기간 중 빅카인즈의 서비스 매체 수 변화(2018년 4월 43개, 2021년말 현재 54개)에 따른 분석 매체수의 변화가 있었지만 핵심 연관어 도출에는 영향이 미미하였다.¹⁾ 네이버 뉴스 검색의 대상 매체는 코로나19 이전에는 40개 매체를 대상으로, 이후에는 기사량의 급증으로 3차례 분석매체 수의 변화가 있지만 대부분 8개 매체를 대상으로 하였다.²⁾ 분석 매체 수의 변동에 따른 기사 빈도수의 도출은 변동기간의 평균 가중치로 보정했으며, 분기별 1회씩 표본 추출 및 재분석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1차 분석 리포터에서 빅카인즈를 사용한 데이터 마이닝은 가중치 중심의 연관어 분석을 하였다. 관련 기사의 추출을 위한 검색어 조건은 ‘교회’, ‘기독교’, ‘목사’, ‘예배’가 포함된 기사 중 ‘가톨릭’을 제외하였다.³⁾ 네이버 뉴스 검색을 통한 기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목과 내용 중 ‘기독교’, ‘교회’, ‘목사’, ‘예배’ 단어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는 기사를 추출하였다. 둘째, 한국 개신교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라 해도 단순 언급의 경우 제외시켰다. 셋째, 기사의 제목이나 주 내용이 한국 개신교 관련 내용이 아니더라도 개신교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와 평가 등이 표현된 기사는 포함시켰다.

2)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분석은 뉴스 콘텐츠의 빈도, 추이, 성향, 효과 등을 도출하는 개량적인 연구방법 중 하나이다. Cha(1990)는 “내용분석이란 메시지의 특정한 특성을 객관적·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누가·왜·무엇을·어떻게·누구에게 전달해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 왔는가를 추리하는 문헌적 연구방법의 하나”라고 정의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 내용분석은 네이버 뉴스 검색서비스를 통해 한국 개신교 관련 주간별 기사빈도, 보도성향(긍정, 중립, 부정), 4가지 주제유목(금주의 교회/인물, 금주의 이슈, 주간 나쁜 뉴스, 주간 좋은 뉴스) 등을 도출하였다. 가스펠투데이에 기사화된 1차 분석리포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매주 단위(일~토)로 추출된 모든 기사는 특정 요일(日)에 시차를 두고 두 차례 반복하여 읽으면서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분석의 단위는 Cha(1990)의 코딩단위와 문맥단위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구분이 가능한 단어, 주제, 주장 등의 ‘코딩단위’를 중심으로 하되, 기사의 제목, 내용과 문맥을 중심으

- 1) 2020년 2월 3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개신교 관련 기사의 급증기간 중에는 지방일간지와 전문지를 제외한 20개 매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1차 기사화된 자료와 2년간 분기별 1회 표본분석을 비교한 결과 핵심 연관어 도출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연구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은 없었다.
- 2) 네이버 뉴스 검색 서비스의 대상매체는 40개 매체(중앙일간지 10, 경제지 4, 통신사 3, 방송사 10, 인터넷언론 6, 주간지 5, 전문지 2)를 대상으로 2018.4월1주~2020.2월2주 진행되었다. 2020.2월3주~9월3주 기간은 중앙일간지 중심으로 4~13개 매체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2020.9월4주~2021.12월5주 기간은 일간지 8개(조선, 중앙, 동아, 문화, 경향, 서울, 한겨레, 한국) 매체 대상으로 분석했다.
- 3) 개신교 관련 보도의 검색어에 ‘교인’, ‘선교’, ‘모임’ 등 기타 검색어를 포함 시킬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 관련 뉴스에는 위 4가지 키워드가 1회 이상 언급되는 대표적인 키워드라 할 수 있다.

로 분석하는 ‘문맥단위’를 함께 고려하였다.

3)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규모가 크고, 짧은 생성 주기, 수치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뜻한다(Jung, 2013: 2).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과 활용기법을 ‘빅데이터 분석’이라 하며, 2000년대 초반 개발된 구글의 소젤(Sawzall), 2006년 야후 지원으로 개발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하둡(hadoop), 국내의 빅카인즈(BIG KINDS) 등 다양한 분석 툴이 발전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빅카인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1990년 오픈한 카인즈(KINDS)를 개선한 서비스로 현재 54개 매체의 약 7천 만 건 뉴스 콘텐츠 자료를 빅데이터 자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빅카인즈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은 뉴스수집시스템, 뉴스분석시스템, 뉴스저장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장된 분석 정보는 일반인과 언론사, 기업, 학계 등 전문가 분석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다. 빅카인즈는 뉴스 속 키워드 관계망, 주요 이슈, 정보원, 이슈 트렌드 분석 등을 제공한다. “빅카인즈는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에 용이하도록 정형화된 데이터로 변환시켜 제공하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Kim & Kwon, 2020: 169). 텍스트 마이닝은 데이터 마이닝 중 일부로 뉴스, SNS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화된 패턴을 추출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이다(Park & An, 2019: 145-146). 본 연구는 빅카인즈를 사용하여 텍스트 마이닝 중 키워드의 빈도 분석과 가중치 기준의 연관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사빈도의 추이

연도별 기사빈도의 추이는 <표 2>와 같이 코로나19 전후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2018년과 2019년의 월간 기사빈도는 각 각 월평균 716건과 817건이며, 2020년과 2021년도의 월평균 기사빈도는 6,565건과 2,955건이다. 특히 2019년과 2020년의 기사빈도는 평균 약 7.8배의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코로나19와 한국 개신교간에 높은 연관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대구 신천지에서 시작된 1차 대유행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진 지역교회 및 선교단체 등의 집단감염 그리고 정부당국의 현장예배 제한 행정명령에 따른 개신교계와의 갈등 등이 언론보도의 빈도를 급증시켰다. 월별 기사량의 분포를 근거로 보면 부활절 및 성탄절 같은 교회력과 언론보도의 상관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의 기사빈도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 개신교 관련 언론보도는 교회력이나 종교 본연의 내용보다는 사회와 관련된 뉴스에 관심(뉴스가치)이 높

<표 2> 연도별 월별 기사빈도⁴⁾
 <Table 2> article frequency by month & ye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2018	-	-	-	818	800	536	467	834	534	872	919	663	6443
2019	779	729	652	872	821	997	868	840	929	998	673	643	9801
2020	718	11141	10553	4722	2686	6151	5170	16799	7598	1784	2671	6388	76381
2021	4446	2216	1765	2934	2244	3131	3032	3566	2817	2036	2723	4555	35465

다고 할 수 있다.

2. 보도성향의 추이

코로나19 전후로 기사빈도의 확연한 대비를 가져온 것과는 달리 <표 3>과 같이 보도성향의 변동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코로나19로 긍정성향의 비율은 약 50% 감소했고, 부정성향의 비율은 완만하고 지속적인 감소 그리고 중립성향의 비율은 10%

<표 3> 연도별 월별 보도성향별 비율
 <Table 3> ratio by article tendency by year and month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2018	긍정	-	-	-	19.4	10.1	11.6	6.8	6.5	11.2	8.6	7.3	8.9	9.9
	중립	-	-	-	33.6	68.4	76.0	77.4	69.3	58.0	67.6	67.3	79.7	66.3
	부정	-	-	-	47.0	21.5	12.4	15.8	24.2	30.8	23.8	25.4	11.4	23.8
2019	긍정	14.3	17.5	17.1	11.4	7.1	6.2	9.6	9.6	6.1	10.6	9.1	11.2	10.8
	중립	71.3	74.7	75.7	78.9	77.6	69.0	66.1	64.0	76.1	67.3	79.7	73.4	72.7
	부정	14.4	7.8	7.2	9.7	15.3	24.8	24.3	26.4	17.8	22.1	11.2	15.4	16.5
2020	긍정	8.1	2.2	2.5	2.4	5.5	4.9	5.1	1.9	4.3	5.6	8.0	4.0	4.6
	중립	77.7	89.0	76.5	77.6	85.5	81.5	81.6	77.9	76.1	83.2	83.0	81.7	80.7
	부정	14.2	8.9	21.0	20.0	9.0	13.6	13.3	20.2	19.6	11.2	9.0	14.3	14.7
2021	긍정	3.6	8.4	6.0	3.9	3.7	7.5	4.3	4.1	11.0	7.2	7.1	7.2	6.3
	중립	65.7	78.9	83.7	87.6	89.2	80.2	83.5	85.5	80.4	86.4	84.2	81.7	82.2
	부정	30.7	12.7	10.3	8.5	7.1	12.3	12.2	10.4	8.6	6.4	8.7	11.1	11.5

- 4) 네이버의 분석대상 매체는 40개이고, 2020년 2월부터 기사는 코로나19로 기사량이 급증하였기에 분석 매체를 4~13개로 조정하여 분석했으며, 기사 빈도는 40개 매체를 대상으로 하며 중복 및 단순 언급 기사를 제외하지 않고 전체 빈도수를 파악한 수치이다.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코로나19 관련 보도량이 급증하면서 중립성향의 스트레이트 기사 또한 급증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는 중립성향의 기사량 급증으로 긍정성향 및 부정성향의 기사비율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3. 핵심 연관어 분석

빅카인즈를 통해 추출된 주간별 개신교 관련 보도의 핵심 연관어를 연도별로 취합하면 <표 4>와 같다. 2018년과 2019년의 핵심 연관어는 다양하게 나타나며, 핵심 연관어별 빈도의 집중도가 높지 않다. 2018년 및 2019년도 핵심 연관어 중 빈도수가 가장 높은 ‘성폭행’은 각 각 7회와 3회 수준이다. 반면 2020년은 53주중 12주를 제외한 41주간의 핵심 연관어가 ‘확진자’ 및 ‘코로나19’로 나타났고, 2021년도 역시 코로나19와 무관한 핵심 연관어가 채택된 주는 7주에 불과하다. 2018년과 2019년의 핵심 연관어 ‘성폭행’은 이재록 목사의 교인 성폭행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이후 다수 목사의 성폭행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나타난 것에 기인한다. 2020년과 2021년도의 핵심 연관어는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른 ‘확진자’로 나타났다.

<표 4> 연도별 핵심 연관어
<Table 4> coer keywords by year

	2018	2019	2020	2021
1	성폭행	성폭행	확진자	확진자
2	신도들	사람들	코로나19	코로나19
3	하나님	전광훈	신천지	오미크론
4	기독교	여중생	현장예배	대면예배
5	담임목사	예배당	대면예배	명도집행

빅카인즈를 통해 추출된 주간 핵심 연관어의 감성분석⁵⁾ 결과는 <표 5>와 같다. 주간별 핵심 연관어의 감성 비율 변동은 전체기사의 보도성향 비율 변동과는 달리 코로나19 이후 부정성향의 비율이 약 30% 증가했다. 따라서 코로나19는 주간별 핵심 연관어의 부정성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연관어의 감성성향별 내용은 <표 6>과 같다. 긍정성향의 핵심 연관어는

5) 감성분석 방법으로는 긍정, 중립, 부정과 같은 극성을 분석하는 Fine-grained Sentiment Analysis 방법, 기쁨, 분노, 두려움, 슬픔, 놀람과 같은 감정을 분석하는 Emotion Detection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단어나 문장을 판단하는 Aspect-based Sentiment Analysis 등이 있다(Kim & Lee, 2020: 495). 본 연구에서는 보도의 비판성향을 분석하는 것과 같이, 핵심 연관어를 비롯하여 각 항목별 보도성향 분석에 Fine-grained Sentiment Analysis 방법을 적용하였다.

2018년 주차장, 2019년 베이비박스, 부활절, 구세군, 2021년 조용기 목사 등이다. 부정성향의 키워드는 2018년 성폭행, 이재록, 2019년 이재록, 한기총, 전광훈, 담임목사, 성폭행, 교단 재판국, 타작마당, 2020년 확진자, 코로나19, 신앙훈련, 집단감염, 2021년 확진자, 코로나19, 집단감염, 명도집행 등으로 나타났다.

<표 5> 연도별 핵심 연관어 감성분석
<Table 5> sentiment analysis of core keywords by year

	2018		2019		2020		2021		계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건수	%
긍정	4	10.9	8	15.4	-	-	1	2.0	13	6.8
중립	12	32.4	23	44.2	15	28.3	7	13.7	57	29.5
부정	21	56.7	21	40.4	38	71.7	43	84.3	123	63.7
계	37	100	52	100	53	100	51	100	193	100

<표 6> 연도별 감성성향별 핵심 연관어
<Table 6> core keywords by sentiment orientation by year

	2018	2019	2020	2021
긍정	하나님, 기독교, 주차장	베이비박스, 사람들, 부활절, 장례예배, 구세군, 성탄절,	.	조용기 목사
중립	연쇄폭탄테러, 결혼식, 담임목사, 기독교, 정미소, 대한예수교장로회, 선교사들, 홈페이지	문화재, 주차장, 하나님, 여중생, 사람들, 퇴직금, 월추리, 김석훈, 소녀상, 심신미약, 문재인대통령 경로당, 개신교, 수료식, 청와대, 예배당	사람들, 신년기자간담회, 확진자, 현장예배, 부활절, 사회적 거리, 코로나19, 대면예배, 베이비박스	확진자, 대면예배, 신도들, 성탄절
부정	성폭행, 성추행, 성폭력 이재록, 피해자들, 대법 편입학과정, 하나님, 신도들, 유치원, PD수첩, 강사비명목	이재록, 교주 정명석, 항소심, 한기총, 전광훈, 예배당, 담임목사, 성폭행, 은행법위반, 신도들, 교단 재판국, 이중생활, 투쟁본부, 대한예수교장로회, 극우적사고, 타작마당	확진자, 코로나19, 영장실질검사, 기독교인, 세무조사, 신앙훈련, 총회장, 집단감염	확진자, 확진판정, 코로나19, 집단감염, 대면예배, 성북구청, 성폭행, 성폭력, 교인들, 피해자들, 명도집행, 오미크론

4. 금주의 교회/인물 분석

네이버 뉴스 검색을 통한 주간별 ‘금주의 교회/인물’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이재록, 김삼환, 전광훈, 신옥주 등이 주목을 받았고, 이후에는 전광훈, 이만희, 소강석 등이 주목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언론이 주목하는 교회/인물은 종교본연의 활동에 근거한 채택보다는 대부분 ‘대형교회’, ‘불법행위’, ‘일탈’, ‘갈등’이라는 내용적 특성(뉴스가치)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표 7> 연도별 ‘금주의 교회/인물’
<Table 7> ‘weekly Church and people’ by Year

	2018	2019	2020	2021	전체
1	이재록 (만민중앙) 교인 성폭력	전광훈 (한기총) 한기총 정치언행	전광훈 (사랑제일) 한기총 정치언행	전광훈 (범투본) 집회/예배당사태	전광훈
2	신옥주(과천은혜로) 사기/폭행	김삼환 (명성교회) 변칙세습사태	이만희 (신천지) 대구 코로나사태	한교총 행사/활동	이재록
3	김삼환 (명성교회) 변칙세습사태	이재록 (만민중앙) 교인 성폭력	소강석 (새에덴) 총회장 행보	이영훈(여의도) 사회봉사/조용기	김삼환
4	소강석 (새에덴) 참전용사초청 등	서울교회 (교회분열/갈등)	이영훈 (여의도) 사회봉사	소강석 (새에덴) 참전용사 온라인	이만희
5	오정현 (사랑의) 자격/예배당사태	이종락 (주사랑) 베이비박스	김삼환 (명성교회) 세습사태/낯소동	이홍정 (NCCK) 기자회견/추모	소강석/이영훈 신옥주/오정현

5. ‘금주의 이슈’ 분석

네이버 뉴스 검색을 통한 주간별 ‘금주의 이슈’를 정리하면 <표 8>, <표 9>와 같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이재록 신도 성폭행’과 ‘명성교회세습’이 주요 이슈였고, 이후에는 ‘코로나 사태’와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가 주요 이슈였다. <표 9>를 보면 주간별 ‘금주의 이슈’의 긍정성향 비율은 약 21%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약 5.6%로 큰 폭으로 줄었다. 부정성향의 비율은 2019년 55.8%에서 2020년 67.9%로 약 12% 증가하지만, 2021년에는 51%로 낮아져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개신교 관련 언론보도에서 주간별 이슈의 부정성향이 4년 동안 50%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한국 개신교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비판적 이슈에 집중되어 있음을 반증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개신교 관련 주간 이슈의 부정성향 비율의 증가는 2020년 첫해에 한시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신교 관련 언론보도는 기본적으로 부정성향의 이슈에 대한 언론의 주목도가 높고, 코로나19의 영향은 한시적이라 할 수 있다.

<표 8> 연도별 '금주의 이슈'
<Table 8> 'weekly issues' by year

	2018	2019	2020	2021
1	이재록 신도 성폭행(8)	전광훈 정치연행(8)	코로나사태와 한국교회(14)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9)
2	명성교회세습(5)	3.1운동 100주년(6)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13)	교회 집단감염(9)
3	신옥주 사기 폭행(4)	목사 일탈(4)	교회 집단감염(10)	코로나사태와 한국교회(6)
4	목사, 그루밍 성폭력(3)	명성교회사태(3)	대구 신천지(9)	차별금지법(3)
5	오정현 목사(2) 대체 복무제(2)	사랑의교회 예배당(2) 이재록 성폭력(2/2)	-	채플, 인권위권고 갈등(2)
종합	이재록 성폭행 / 명성교회세습		코로나 사태 /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	

<표 9> 연도별 '금주의 이슈' 보도성향
<Table 9> article tendency of 'weekly issues' by year

		2018		2019		2020		2021		계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보도 성향	긍정	8	21.1	11	21.2	3	5.7	3	5.9	25	12.9
	중립	10	26.3	12	23.1	14	26.4	22	43.1	58	29.9
	부정	20	52.6	29	55.8	36	67.9	26	51.0	111	57.2
	계	38	100	52	100	53	100	51	100	194	100

6. 주간 '나쁜 뉴스' 분석

네이버 뉴스 검색을 통한 주간별 '나쁜 뉴스'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주간별 '나쁜 뉴스'

<표 10> 연도별 '주간 나쁜 뉴스' 유형
<Table 10> types of 'weekly bad news' by year

	2018		2019		2020		2021		계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목사 일탈	15	39.4	25	48.1	14	26.4	25	49.0	79	40.7
교회내 문제	5	13.2	8	15.4	11	20.8	1	2.0	25	12.9
평신도 일탈	4	10.5	6	11.6	5	9.4	5	9.8	20	10.3
대사회 문제	6	15.8	10	19.2	14	26.4	20	39.2	50	25.8
이단문제	5	13.2	2	3.8	5	9.4	-	-	12	6.2
해외 기독교	3	7.9	1	1.9	4	7.6	-	-	8	4.1
계	38	100	52	100	53	100	51	100	194	100

를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와의 관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쁜 뉴스’를 세부 유형으로 보면 ‘목사 일탈’이 평균 40.7%로 가장 높고, 그 뒤로 ‘대사회 문제’ 25.8%, ‘교회 내 문제’ 12.9%, ‘평신도 일탈’ 10.3% 순으로 나타났다.

7. 주간 ‘긍정 뉴스’ 분석

네이버 뉴스 검색을 통한 주간별 ‘긍정 뉴스’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세부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이를 살펴보면 주간 ‘나쁜 뉴스’추이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주요 유형으로는 ‘대사회활동’, ‘역사’, ‘교회활동’ 순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는 ‘교회활동’과 ‘대사회활동’ 관련 뉴스가 증가하고, ‘역사’ 관련 뉴스가 줄었다.

<표 11> 연도별 ‘주간 긍정 뉴스’ 유형
<Table 10> types of ‘weekly positive news’ by year

	2018		2019		2020		2021		계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교회 활동	3	7.9	6	11.6	9	17.7	14	27.5	32	16.7
대사회 활동	21	55.2	19	36.5	27	52.9	26	51.0	93	48.4
평신도 활동	1	2.6	6	11.6	2	3.9	3	5.9	12	6.3
역사	9	23.7	14	26.9	6	11.8	5	9.8	34	17.7
인물/평가	2	5.3	2	3.8	5	9.8	1	1.9	10	5.2
해외 기독교	2	5.3	5	9.6	2	3.9	2	3.9	11	5.7
계	38	100	52	100	51	100	51	100	192	100

V. 결 론

21세기 한국사회 상황에서 코로나19 전후로 언론이 한국 개신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과제이다. 코로나19를 전후한 최근 4년간(2018~2021) 언론이 바라보는 한국 개신교의 이미지를 네이버 뉴스검색을 통한 내용분석 그리고 빅카인즈의 통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개량화하여 성찰하였다. 본 연구는 매주 단위로 진행한 194회 분석리포터를 대상으로 통합적으로 재분석하는 방식으로 결과물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일곱 가지 주요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언론이 보도한 한국 개신교 뉴스는 코로나19 전후로 기사빈도의 극명한

변화가 있었다. 특히 2019년과 2020년의 기사빈도는 평균 약 7.8배의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둘째, 보도성향의 추이는 기사빈도의 확연한 대조와는 달리 완만한 변화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긍정성향의 기사 비율 감소, 부정성향 비율의 지속적인 감소 그리고 중립성향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것은 코로나19 관련 보도량이 증가하면서 중립성향의 스트레이트 기사가 급증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셋째, 빅카인즈를 통해 추출된 주간별 핵심 연관어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성폭행’의 빈도수가 많았지만 다양하게 나타났고, 이후에는 ‘확진자’의 빈도수 및 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주간 핵심 연관어의 감성은 전체 기사의 보도성향과 달리 부정성향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개신교 관련 보도의 주간별 핵심이슈로 코로나19 이전에는 ‘이재록 신도 성폭행’, ‘명성교회세습’이며, 이후에는 ‘코로나 사태’,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등으로 나타났다. 개신교 관련 언론보도는 기본적으로 부정성향의 이슈에 대한 언론의 주목도가 높고, 코로나19로 인한 이슈 성향에 대한 영향은 한시적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언론이 주목한 교회/인물은 ‘대형교회’, ‘불법행위’, ‘일탈’, ‘갈등’이라는 내용적 특성을 가졌다. 일곱째, 언론이 관심을 가진 나쁜 뉴스의 유형은 ‘목사일탈’, 좋은 뉴스의 유형은 ‘대사회활동’ 등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은 개신교 관련 언론보도의 빈도수를 급증시켰으며, 주요 이슈의 집중도를 높이면서 부정성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전후 이러한 언론보도의 변화는 한국 개신교가 한국사회의 시대적 역할에 부응하지 못하고 갈등적으로 만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이러한 언론보도의 내용과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그리고 이에 대한 개신교 내부의 반응과 대응은 향후 연구과제이다. 본 연구는 언론이 한국 개신교를 바라보는 4년간의 추이를 종단적으로 분석함으로 코로나19 전후의 변화와 특성을 분석적으로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다종교사회에서 종교의 정체성과 건강성은 각 종교의 내적 성찰과 함께 시대적 사회적 관계성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향후 코로나19 전후 언론이 바라보는 각 종교별 변화와 특성을 통합적으로 도출하여 각 종교와 사회 관계성을 성찰하는 것이 발전적 연구과제이다.

References

- Baik, K. H. (2021). The Task of the Korean Church after COVID-19: Focusing on the Perception Survey of <Research on COVID-19 and the Korean Church>. *Journal of Mission and Theology*, 55, 95-125.
- Hwang, W. S. & Kim, S. H (2015). Journalistic ideals and reality in terms of fairness: The

- case study about media coverage over “kidnapped Afghanistan missionary group”. *Social Science Review*, 46(1), 83-109.
- Jang, H. K. (2001). Religious Culture Reflected by Mass Media. *Journal of Religious and Cultural Studies*, 3, 109-136.
- Jung, H. S. (2010).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reporting the religious issues by domestic newspapers: Focused on the Dong-a Ilbo, the Hankyoreh, and the Kukmin Ilbo*.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 Kim, G. M. (2020). Korean Churches’ Response to Covid-19 Pandemic and Missional Reflection: Focusing on task analysis using ‘Big Data-Text Mining technique’ and practical counterstrategy.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52(5), 175-204.
- Kim, G. T. (2010). Comparative analysis of religious images drawn by the media.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Fall Regular Conference Materials*, 147-152.
- Kim, H. S. & Lee, J. H. (2020). Sentiment Analysis Using Mixed Feature Vector combined with the Sentiment Dictionary Information.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telligent Systems*, 30(6), 494-499.
- Kim, J. O. & Kwon, C. H. (2020). Comparative Analysis of News Articles related to Airlines and Staff the Previous Corona19(2019) and After Corona19(2020).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25(7), 163-173.
- Koo, M. K. & Noh, G. S. (2022). Analysis of Perception Changes in Religion after COVID-19 using Deep Learning.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telligent Systems*, 32(1), 13-19.
- Lee, H. J. (2021).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Religious Reporting in Daily Newspapers and Missionary Response Tasks. *Journal of Gospel & Mission*, 56, 197-238.
- Lee, S. Y. (2011). Media Coverage on Religion: TV documentary <God’s Way Man’s Way>.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11(12), 658-673.
- Newspaper & Broadcasting. (1987.04). The reality and difficulties in religious reporting [Web log post]. Retrieved June 15, 2022, from <https://www.kpf.or.kr/front/user/subMainA.do>
- Oak, S. S. (2014). Protestantism in Korea seen through discourse analysis of daily newspapers. *Hope Theology Forum*, 237-302.
- Park, G. Y. & An, H. J. (2019). The Topic Modeling Analysis of The DMZ Tour Issues Using Text Mining. *Tourism & Leisure Research*, 31(4), 143-159.
- Park, J. K. (2008). Justifying the Media’s Production of Religious Discourse: A Case Study of TV Documentary God’s Way, Man’s Way.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22(6), 110-148.
- Park, J. K. (2009). "Media, Religion, and Culture": A New Approach to the Study on the Intersections between Media and Relig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3(6), 310-327.
- Park, J. K. (2010). Discourse on the social role of religion produced by journalism: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religious aspect of daily newspaper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Fall Regular Conference Materials*, 153-155.
- Seo, D. W. & Ha, T. H. (2021).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n News Report of 'Shincheonji' in COVID-19. *Journal of Media & Society*, 29(3), 35-111.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0).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서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Translated in English) Christian ethics movement of Korea. *Results of the 2020 Korean Church Social Reliability Opinion Survey (2020)*. Seoul: Kidoggyoyunlilcheon-undong.
- 이원규 (1993). "해방 후 한국인의 종교의식 구조 변천연구." 현대 한국종교 변동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Translated in English) Lee, W. G (1993). A Study on the Structure of Religious Consciousness in Koreans After Liberation. *A Study on Changes in Contemporary Korean Religion*. Sun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정용찬 (2013). 빅데이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Translated in English) Jung, Y. C. (2013). *Big Data*. Seoul: CommunicationBooks.
- 차배근 (1990). 사회과학연구방법. 서울: 세명사. (Translated in English) Cha, B. G. (1990). *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s*. Seoul: Semyeongsa.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13). 한국 기독교 분석리포터: 201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보고서. 서울: 도서출판 URD. (Translated in English)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of Christian Pastors (2013). *Korean Christian Analysis Report: 2013 Korean Religious Life and Consciousness Survey Report*. Seoul: URD.